

[호소문]

일본을 바꾸자! 세계를 바꾸자! 우리들을 바꾸자!



새로운 준비에의 출발

우리들은 [살게 해라]라고 목숨의 외침을 울리기 시작한 비정규직 청년들. [이제는 참는 것도 한계다]라며 심각해지는 생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고령자를 비롯해, 빈곤의 한복판에 있는 노동자 민중의 자기해방과 사회변혁을 향하여, 새로운 전국적 해방조직 [혁명 21]의 건설에 도전하기 위하여, 여기에 본격적 준비에 들어 갈 것을 공표합니다.

역사의 큰 변화의 시기가 왔다

지금 시대는[유일한 초대국 미국의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세계는 역사적 격동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본의 [돈 벌이]를 위한 약육강식의 폭주와 연명을 위한 악정이 세계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와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초래 하여, 인간이 인간인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격차와 빈곤의 연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럴과 인류의 황폐를 만들어 내어, 하나 밖에 없는 지구와 인간의 생명과 생활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울때 야말로 조수의 변환기 기회입니다.

미국출발 [서브프라임론] 문제를 진원지로 하는 [세계적 신용공황]의 시작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를 포기하는 길 밖에 해결 할 방법이 없는 근본 모순의 출현 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의 투쟁을 위한 단결과 발전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남미의 [사회주의 르네상스]의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는 노동자 민중의 반미, 반자본주의 투쟁과 글로벌리제이션, 신자유주의와 투쟁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 민중에 의한 자본주의 전복에 의하여 인류의 공유재산이어야 할 물과, 식량, 에너지자원을 비롯해 노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과 미래를 되찾아 갈, 함께 창조하는 혁명의 가능성의 접근, 전체적으로[또 하나의 세계]에의 이행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시대정신의 요점이야말로 어떻게하면 자본주의를 타도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 할 수 있을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원하는 곳에 서다

이것은 몰락하고 있는 미국과의 운명공동체로서 군사대국, 전쟁국가, 빈곤대국에의 길 [9조개헌, 안보재편]을 걷는 일본에 있어서야말로 시급을 요하는 과제입니다.

일,미 안보체제 하에서 초대국 미국에 추종하고, 고이즈미-아베-후쿠다정권 아래 신자유주의에 의한[약자는 죽어라]라고 할 만한 격

차와 빈곤 확대 민영화와 노조 파괴정책을 추진해 온 자민. 공명정권도 또 확실하게 그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민. 공명정권의 압정에 [이대로 무릎을 꿇고 나라에 굴복하고 좋겠느냐]라고 오키나와-일본 전국토에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가 소용돌이치고, 사람들이 단결하여 투쟁에 앞장서는 조건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미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말기 증상인 자민. 공명정권에 마지막 선언을 하고, 제이차 대전후의 자민당정치 흐름을 바꾸어, 일본을 바꿀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한 천재일우의 호기도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원흉인 자본주의를 쓰러뜨리고 선명한 이념과 일본 사회개혁의 [희망의 미래]에의 비전을 내걸고 투쟁하는 결정적인 [추진력]은, 아직 만들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의지할 곳으로서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협동 연대로[추진력]의 창출을, 우리들은 시작합니다.

기성정당을 대신하는 것

우리들은 노동자운동 대중투쟁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투쟁하고, 모든 착취와 억압, 빈곤과 격차의 원흉인 자본주의를 근본으로부터 변혁하여, 당면 [일본 열도틀에 자치, 공화, 협동의 또 하나의 일본]의 실현으로,

일본에서 동아시아-세계로, 노동자의 자기해방과 모든 사람들의 인간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집단]을 지향합니다.

일본 노동운동의 전투적 재생에 입각하여, 노동자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이 조직은, 종래의 [당]이 가지는 이미지를 불식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은 참된 의미로 노동자의 자발적 자율적 의지에 의하여 투쟁하여, 생생하게 그 자기해방을 발전 시키며 자립, 자치를 창출, 창조하는 해방 조직입니다. 본격적인 준비에의 [호소]를 발표할 책임을 두고, 우리들은 여기에 새로운 시대적 특성을 띠지 않을 수 없는 [새조직]의 이미지에 대하여, 스스로의 견해를 솔직하게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기성정당, 정치조직은 많은 적든 상의하달의 중앙집권형의 조직구조, 민중에 대한 혼자만의 [전위] 의식에 의해 형성되고, 이것들은 독선주의와 권력주의, 관료주의, 더욱이 조직 내외에서의 이론의 압살과 폭력 [독]을 초래 해 왔습니다. 또 대중조직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에워싼 지배, 혁명적 모럴의 경시등을 조직적 특성으로 해 왔습니다.

이와같은 20세기의 기성정당 정치조직 자체가 [20세기 사회주의의 좌절]과 함께, 이미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는 과탄하고 있습니다.

운동형의 새로운 해방조직의 창조를

우리들은 [운동형 신당의 형성]에 과감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협동조합형 사회] <어소시에

이션>의 실현을 향하는 [21세기 사회주의혁명] <어소시에이션혁명>의 도전이 그것에 어울리는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당]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래의 [당]의 자세를 부정하는 새로운 조직의 특성은 [구성원<주권> 민주자치권제, 라디칼<근원적>민주주의, 공개성]의 네개의 원칙입니다.

즉 이론이 있어도 단결 가능한 [다양성의 승인 하에서의 통일]에 의한 협동기준의 창조이며, 혁명적 모럴을 겸비한 조직원리에 의한 [운동] 리즘상 <근경>으로서의 조직입니다. 이 새로운 조직은 [당을 위한 당]이 아니고, 빛을 발하는 운동의 회오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 달려 있고, 그 투쟁 과정에 있어 새로운 유대, 새로운 조직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개개인의 운동이 과거에서부터 생성되어, 현재도 질질 끌고 있는 배타적, 분열지향, 불필요한 당파간 항쟁을 자기 목적화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다양한 제정치세력의 가능한 한의 동원적 협동을, 서로의 인간적 동지적 신뢰를 존중하여 함께 투쟁하고 싶다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 새로운 도전, 그것은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그 살아가는 법, 일하는 법, 생활하는 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길에 통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공통의 적이 명확 해 지면, 공통의 전략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무관심, 무력함을 버리자!

그 때, 우리들의 앞에 길은 크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들은 호소 합니다

이 새조직 창립에의 준비 과정은, 그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열린 토론과 라디칼한 민주주의에 위한 새로운 혁명 프로그램을 [헌장]으로서 창조하고, 일본에서 동아시아로,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는 전세계의 민중과의 국제연대를 추구하는 [신당]을 함께 만들 것을 바라는 제개인, 그룹, 정치적 조류에-호소 합니다.

특히 가계, 혈통이나 여성, 남성을 막론하고, 비정규직의 청년들, 노동조합의 활동가, 농민조합의 활동가, 지역의 활동가, 피차별민중, 모든 커뮤니스트, 사회주의자에게 호소 합니다.

뜻을 높이,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기쁨과 긍지를 가지고 임하자!

일본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자!

우리들을 바꾸자!

새로운 [운동형 신당]의 창출에 함께 도전하자!

2008년5월11일

[혁명21] 준비회